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ading Education Methods for University Students in University Libraries

이 경 민(Kyung-Mi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독서지도 방안 |
| 1. 연구문제 | 1. 교육시스템에서 추천도서 읽기 |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독서토론에 중점을 두는 독서행사 |
| 3. 선행연구 | 3. 글쓰기와 병행하는 독서교육 |
| II. 국내 대학도서관의 독서행사 사례 조사 | 4.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들의 독서력 |
| 1. 사례 선정 | IV. 결론 |
| 2. 자료수집과 분석 | |

초 록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도서대출량이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독서량도 급감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들은 교양학습의 중심으로 교양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독서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4개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교양필독서로 추천된 도서는 대학교육시스템 속에서 의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안이 적당하고, 도서관 독서행사로는 내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독서토론이 효과적이며, 독서교육에는 글쓰기를 통하여 개인의 직접 경험과 독서 경험을 일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독서지도를 담당할 사서들의 독서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독서토론, 독서지도, 독서교육

ABSTRAC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varieties multi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y, university students's book reading and university library's book borrowing rate is decreasing. As a center of liberal learning, university libraries have many events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But those events do not give practical help for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er benchmarked 4 university libraries that have most active in reading events. The results is below. For reading promotion about the liberal books that was recommended by university, it is suitable to be reading in university education system. Reading discussion is effective for motivation in library reading events. Writing is preferable at reading education by integrating the personal and reading experience. The reading ability of librarians is essential for good reading service in library.

Keywords: University Library, Reading Discussion, Reading Guidance, Reading Education

* 이 논문은 2012년도 숭의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kmlee@sewc.ac.kr)

• 접수일: 2012년 11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1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I. 서론

1. 연구문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은 교육과 연구 지원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독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대학도서관들은 도서대출량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서 독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독서관련 행사들은 수요자인 대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칫 일회용 행사로 그칠 염려가 많다.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인데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독서 의욕을 고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책 이외의 다양한 매체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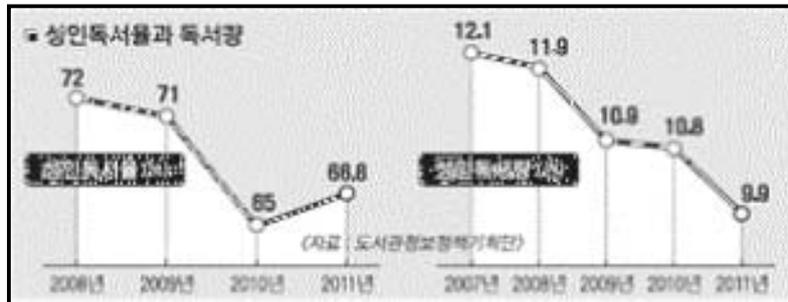
2011년 대학생들이 대학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횟수가 연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대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전체 이용건수는 2010년의 2,204,182건보다 23.5% 줄어든 1,685,490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등록된 대학생이 2,065,451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대출건수가 연간 1회도 안 되는 0.8회에 그쳤다.¹⁾ 단순히 도서관의 도서대출량으로 대학생들의 독서량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대학생들은 취업준비에 내몰려 성적관리나 스펙 쌓기에 시간을 투자하여 영어공부나 취직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주로 읽는 책들의 내용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도서대출 순위를 보면 여전히 무협소설과 판타지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일본소설이나 혹은 자기개발서와 같은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독서는 비록 대학생들에게만 부족하거나 불균형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성인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성인 독서량을 보면 2007년에 12.1권에서 꾸준히 떨어져 2011년에는 9.9권으로 집계됐다.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는 지표인 독서율은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의 경우 2008년 72%에서 꾸준히 하향 추세를 그리며 2011년 66.8%로 떨어졌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성인들의 저조한 독서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대학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독서진흥을 위해 2006년부터 '독서문화진흥법'을 만들어 전국민 독서를 권장하고 공공도서관 수를 확대하고 있다. 또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선언하

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1601070927168002>> [인용 2012. 9. 16].

2)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6746.html> [인용 2012. 9. 16].



〈그림 1〉 성인독서율과 독서량

여 독서인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인들의 독서량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³⁾ 대학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희대 한의대처럼 권장도서 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숙명여대나 고려대, 이화여대처럼 독서토론, 논리와 추론, 고전문학 이해 등과 같은 교양과목을 신설해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 교과목지정도서, 독서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도서관 차원에서는 조선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강원대학교 등이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학생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학도서관들 중에서도 일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독서량이 소폭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취업준비로 시간 부족과 책을 대신하는 컴퓨터와 영상매체 등의 외부 요인도 있지만,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 대학생들은 주위에 드라마를 비롯하여 음악, 영화, 인터넷 등과 같이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들이 많아서 굳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독서에서 재미를 느끼기에는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재미보다는 교양함양 차원에서 스스로에게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즉 대학생생활에서 독서는 진정한 대학생이 되기 위한 관문이고, 폭 넓은 사고를 위한 공부로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대학생들은 대학이나 도서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한다든지, 혹은 각종 동아리 모임에서 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독서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독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재미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학생활은 교양인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마지막 단계이다. 대학생활 기간 동안에 필요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졸업한다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장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비록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더라도 실제 업무와 생활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 독서량에 따라 결정이

3)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View.php?code=seoul&id=20120828009004>> [인용 2012. 9. 28].

달라진다. 대학생으로서 독서를 통하여 인격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 리더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항목이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얼마만큼 많이 습득하여 자신의 사고에 접목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내 대학생들은 OECD 국가 중 대학생 독서량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독서질에서도 취업에 쫓겨 취업에 관련된 어학서적과 흥미위주의 판타지 소설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서 대학생으로서 바람직한 독서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대학기간은 자신의 정체감 혼미의 위험을 피하고 정체감 성취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전에 비교적 타율적 수동적인 입시제도에 종속되었다가 입학 후에 갑자기 스스로에 의한 능동적인 독서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탐구하고 사고를 정립 확립하는 행위는 상당히 어렵다.⁴⁾

이에 대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여 문학 독서지도 과목이 등장하기도 하고,⁵⁾ 대학도서관에서는 좋은 책을 선정하고 독서를 장려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양 필독서 100선과 같이 읽을 책을 정해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즉 광범위한 책들 중에서 일부 책만을 선정한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권하지 못하는 오류가 많고, 대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여 대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사들 외에 명사초청 특강, 명저 고향답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들이 대학생들의 장기적인 독서지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에 있다. 도서관마다 실시하는 독서행사는 독서운동에 대한 열기가 많지만 도서관의 도서대출량을 보면 독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일회성 독서장려 운동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비록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선정하여 독서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제한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어렵다. 그래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서 독서지도를 하려면 현재로서는 대학도서관이 가장 적합하다. 대학도서관에서 기획하는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대학생들에게 독서활동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독서지도를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사례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

4) E. Erikson,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역(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8), pp.27-28.

5) 김종희, 강정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독서교육론," 한국문학회론과 비평, 제14권, 제1호(2010, 3), pp.271-291.

여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이러한 방안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대학생들은 창조적 지식을 극대화하는 21세기에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논리를 갖추지 못하여 교양인으로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서관 측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하고 보관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예산과 인력 낭비가 되어 결국은 이용자들로부터 도서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3. 선행연구

대학의 목표는 문화나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진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여, 양자 사이에서 창조적 관계를 창출하여 모든 수준에서 점점 높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다.⁶⁾ 이를 위해서 대학의 교육은 직업교육과는 달리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의미하여 인생의 목표를 순화시키고, 정서적 반응을 정련시키며, 이 시대의 최고 지식에 비추어 사물의 본질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한다.

대학교육과 더불어 개인은 자신의 지식, 사고, 창의력이 제대로 표현되기 위한 사고의 틀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줄 알고, 볼 수 있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행동하게 된다. 책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매체이다. 책을 통한 지식과 지혜의 습득, 즉 독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눈을 뜨게 하고,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매일 만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교양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독서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김수경은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정립을 위해 독서치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⁷⁾ 박정길은 대학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라도 강제적으로 독서를 하도록 하자고 제시하면서 독서를 학점화하는 독서학점부과제와 독서인증자격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⁸⁾ 한금윤은 대학생들의 독서 증진을 위하여 교양교육 차원에서 국어교육과에서 연구하는 독서교육의 방법을 대학에서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⁹⁾ 구연배는 대학생들이 자아형성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독서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서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

6) Henry Rosovsky, 대학 갈등과 선택, 이형행 역(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6), p.155.

7) 김수경, "대학생을 위한 독서치료의 적용과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13-245.

8) 박정길,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p.3-22.

9) 한금윤, "대학에서 학제적 독서 교육의 실제와 전망," 독서연구, 제15호(2006), pp.173-205.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제안하였다.¹⁰⁾ 이들처럼 대학에서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대학도서관에서 독서지도를 권장한 경우도 있다.

이희정, 박옥화는 독서 후에 토론이 다른 사람들의 개성적인 생각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대학도서관에서 참고봉사의 하나로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서참고봉사 방법으로는 추천도서 목록 등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과 서평과 함께 신착도서 안내문을 제공하는 역할, 독서교육, 독서요법 등을 제안하였다.¹¹⁾ 이현실¹²⁾과 김수경¹³⁾도 대학생들에게 독서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선정된 독서목록에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김양선은 자발적 읽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 위주로 목록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통제적 글 읽기 방식이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거나 글 읽기에 대한 관심을 저해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권장도서, 교과목 지정도서, 독서인증제 지정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이 고전위주로 설계된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¹⁴⁾ 하지만 대학생들은 고전과 같은 교양도서 보다는 흥미위주의 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교육이 필요하다. 권광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세계의 명작들 보다는 가볍고 감성적인 무협지, 판타지 소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이 쉬운 책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문학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⁵⁾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혹은 대학도서관이 보다 더 적극적인 독서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 도서관들은 다양한 독서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무에 적합한 바람직한 방향을 잡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일어나는 독서행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해결방향을 제시해주는 논문도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로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결합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

10) 구연배, “독서요법이 대학생 자아형성 과정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 제1호(2009), pp.13-30.
11) 이희정, 박옥화, “독서요법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미치는 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9), p.331-351.
12) 이현실,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4호(2010, 12), pp.179-192.
13) 김수경,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치료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241-268.
14) 김양선,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 한림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제23집(2009), pp.28-50.
15) 권광희, 대출통계로 본 대학생의 독서 경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학과, 2002), p.67.

II. 국내 대학도서관의 독서행사 사례 조사

1. 사례 선정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도 대학생들의 독서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 따라 다르지만 추천독서를 선정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기도 하고, 독서캠프나 혹은 독서치료, 독서 힐링캠프, 도서전시회, 도서 나눔 마당, 문학기행, 독서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현재 독서행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타 대학도서관의 독서행사에 영향을 끼치는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대학도서관별 선정이유

도서관	선정 이유
강원대학교	대학교에서 졸업을 위한 독서인증제 최초 도입 독서명인 프로젝트
성균관대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운동 도입 오거서를 통한 글쓰기
조선대학교	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독서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함 철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독서 토론 클럽이 활발함
한양대학교	독서골든벨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짐 독서나눔 한마당으로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함께 책을 나눠읽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는 국내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독서인증제를 도입하여 해외에까지 알려지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는 오거서를 통하여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도입하였고, 조선대학교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서관 스스로 대규모적으로 독서행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는 독서골든벨이라는 대형 독서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을 독서행사에 참가시키는 등 각 대학도서관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다.

각 대학도서관별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독서관련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학교의 독서인증제는 책 읽기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성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과제도서의 경우 1회 독서를 하면 2점, 독서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1점 등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책을 읽고 난후에 주어진 문제평가를 거쳐서 독후감을 컴퓨터독서인증시스템(CBRT)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학생들의 독서력과 인성함양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독서명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도교수 1인이 포함된 독서토론 클럽활동 지원, 저자초청 특강, 체계적인 독서활동과 독서습관을 위한 독서토론캠프를 지원하고 1년에 한 번씩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의 오거서 운동은 한 학기에 세권씩 준의무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사고력과 비판적 성찰 능력, 토론과 대화 능력, 독서를 통한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추천도서 읽기를 비롯하여 신입생 부모님의 편지에 추천된 책 읽기, 독서주제 여행하기, 추천도서 중에 선택하여 독서 후 자신의 생각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도서관에서 캠핑하면서 게임도 하고 책도 읽는 독서 힐링 캠프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입시위주 공부에 따른 철학적 사유 삶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독서토론 모임을 도입하였다. 모임은 2008년도에 4개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1년도에는 36개 팀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추천도서 300권으로 독서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우수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부여하기도 하였고, 대학생들이 갖춰야 할 독서법, 발표력, 토론기법을 기르고 독서생활화를 목적으로 독서캠프를 운영하기도 하고, 독서활동을 원하는 조선대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책 읽어 주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밤샘 책읽기, 초청강연, 도서관 이용수기, 내 인생의 책 한권, 다독자 시상, 독서력 테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독서축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는 'Reader가 Leader'라는 표어 아래 명저의 고향 답사, 명사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도서 나눔 한마당, 독서골든벨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도서 나눔 한마당은 학생들이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나누어 읽음으로서 독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교수들은 자신이 아끼는 책을 제자들에게 기증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서골든벨 행사는 3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인문, 자연, 예술, 의학 등의 분야에서 선정된 10권의 도서를 공부하여 퀴즈 형식으로 각 팀끼리 대항하는 행사로서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식 이외의 추억과 우정을 얻게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험적인 자료는 대학도서관의 독서행사 담당 실무자들에게 아래의 <표 2>와 같은 질문지를 보내,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 수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롯한 경험과 의견을 구하였다. 답변내용에서 궁금한 점은 담당사서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답변을 보충하였다.

〈표 2〉 질문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도서관에서 독서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추천도서는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3. 독서행사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독서행사의 결과로 대출건수가 늘었거나, 대출목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5. 지금까지 행사를 해오면서 느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6. 대학도서관에서 바람직한 독서지도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7.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대학생 독서지도를 위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독서행사 동기

도서관마다 독서행사의 동기는 재학생들에게 철학적 소양을 갖춘 인격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조선대학교에서는 인터넷과 다양한 영상매체들의 발달로 독서량의 저하로 인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도서관의 도서대출 건수의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도서관 스스로가 새로운 업무 개발 차원에서 독서관련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국가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대학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독서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체가 도서관이든 혹은 대학이든 어느 것이나 모두 재학생들의 독서량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는 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함양에 중심점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표 3〉 독서행사 동기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학도서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안)에는 대학도서관의 기능 중 학생들의 독서활동,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대학별로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학도서관이 자료구입비 지원요구 외에 특별히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였다.
성균관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도서대출량 감소 현상에 따른 적극적인 독서 진흥책 필요했다. - 독서를 통한 기본 소양 함양이 필요하다.
조선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량의 저하로 시작하였다.
한양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독서프로그램은 필수적이라 판단하였기에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운영 프로그램에는 독서골든벨, 독서토론, 독서코칭, 독서치료, 도서 나눔 등이 있다.

2) 추천도서 선정

대학도서관마다 추천도서 선정은 교수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선정위원회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추천도서 권수는 조선대학교의 경우에는 최대 300권이나 되었고, 한양대학교에서는 70권만 선정한 경우가 있어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천도서들은 내용면에서 동서양 도서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고전에서부터 현대의 명저들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표 4〉 추천도서 선정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 학생들의 희망도서와 교수와 도서관에서 추천도서로 구성되었다.
성균관대학교	- 추천도서는 주로 교내 교수 및 외부 전문가(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에게 추천을 의뢰하였다.
조선대학교	- 전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전공분야별 교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끝에 최종 선정하였다.
한양대학교	- 해당분야 교수의 추천과 준비위원회의 선정으로 추천하였다.

3) 가장 효과적인 행사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행사에 관련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자 초청 특강에서 유명인사가 초청되는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교과목 연계 독서행사시 호응이 좋았으며, 또 독서토론 클럽도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명 저자 초청 특강, 교과목 연계 독서행사, 그리고 독서토론클럽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가장 효과적인 행사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 저자초청특강으로서 초청되는 저자가 유명한 사람일 경우 학생들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았다.
성균관대학교	- 교과목 연계 독서행사가 호응이 좋다. - 학기 중 수업을 진행하면서 담당 교수가 관련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읽고 독후감을 제출함으로써 수업과 독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질적으로도 학습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대학교	- 독서토론클럽운영이다.(2008년 4팀/ 2009년 12팀/ 2011년 36팀)
한양대학교	- 각 프로그램마다 크기와 목적이 다름으로 어떤 행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4) 대출건수 변화

도서관마다 각종 독서행사 전후의 도서대출량에는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독서골든벨과 같이 행사와 직접 관련 있는 도서에 대한 대출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독서행사는 단순히 도서대출량을 늘리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는데 있기

에 도서대출 건수의 변화에 따라 행사규모를 달리하지는 않고 있다.

<표 6> 대출건수 변화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성균관대학교	- 대출 건수는 미미하게 늘어났다. -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 더 많이 전파되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학교	- 도서대출 건수와 도서관 이용자 수가 증가 되었다.
한양대학교	- 각 프로그램들이 도서를 구입하거나 제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독서치료와 독서골든벨 같은 대형 행사는 대출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관련도서의 대출량이 늘어난다.

5) 행사 진행에서 느낀 문제점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점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과 예산문제이다.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예산보다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위한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에 예산부족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 이외에 일부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사서들은 기존 업무 외에 독서행사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표 7> 행사진행에서 느낀 문제점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독서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 대학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에 특별한 동기부여(장학금, 포상금 등)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사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균관대학교	-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조선대학교	- 예산지원 부족하다.
한양대학교	- 대형 독서행사의 경우에는 경쟁하여야 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 독서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 날 수도 있다. -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은 사서들이 기존 업무를 진행하며 추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업무상 진행되지 못하고 독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서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진다는 아쉬움이 있다.

6)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법

독서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사서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독서행사 관련 실무사서들은 독서토론 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독서행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저자초청특강, 독서기행, 그리고 독서캠프도 효과적인 독서행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교과목과 연계한 독서지도가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교수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표 8〉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법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가 되고 있는 최신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독서토론회를 마련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좋다. - 저자초청특강이 좋으며 가능한 유명인사일 필요가 있다. - 독서기행(역사서 배경지, 문학작품 배경지역, 저자 연고지 등)
성균관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과목(교양 또는 전공기초 과목 일부)과 연계한 독서지도가 효과적이다. - 교수의 적극적 참여가 선결 조건이다.
조선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토론클럽 운영 및 독서캠프가 효과적이다.
한양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는 개인을 창의적인 인간으로 또한 통합적인 인간으로 육성하기위하여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판단되고 도서관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학에서는 독서지도를 논하려면 자의적인 독서 추진과 그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습적인 독서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독서가 되도록 읽기독서, 쓰기독서, 말하기 독서, 듣기독서를 병행 할 수 있는 과정의 독서프로그램이 바람직하고 대학생들의 기호와 취향에 따른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7) 독서 동기부여 방법

독서행사를 하는 목적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 대신에 독서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외부적인 동기부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독서 동기를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에 대학교육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표 9〉 독서 동기부여 방법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에 독서가 필수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 사회전반에 독서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되어야 한다.
성균관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에 대한 장학금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독서 결과에 대한 공정 객관적인 인증서 제공(독서인증제, 기록관리)한다.
조선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
한양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반에 걸쳐 인증제도와 전 학년에 걸쳐 학과시스템에 맞물려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고 독서를 단계별 또는 수준별, 주제별, 대상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동기부여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8) 향후 계획

조사대상 대학도서관들은 현재도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도서관 차원에서 독서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대학차원에서도 독서는 단순히 도서관 행사에 머물지 않고 교과목 연계과목으로 확대 개발하거나, 교양과정으로 흡수하여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10〉 향후 계획

도서관	답변 내용
강원대학교	- 당장은 없지만 항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 독서행사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 교과목 연계 과목 확대 개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 정착화 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 학교에서 독서에 대한 심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진행 중이다. - 내년부터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계획에 들어가 있다. - 교양과정에 고전읽기, 교양도서읽기 등 인문학 확산에 법교적으로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III. 독서지도 방안

인터넷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로 인하여 대학생부터 일반 성인에까지 독서량 감소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교양교육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에서도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독서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던 독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는 주로 추천도서목록 제공하기, 독서 이벤트, 문학 강연회 등과 같이 소극적인 면이 많았다. 대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시간 부족과 도서를 대체할 멀티미디어를 더 선호하고 있어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독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들을 벤치마킹해 보았을 때, 앞으로의 대학 교양독서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추천도서 읽기, 토론 중심의 독서행사, 글쓰기를 통한 개인의 직접 경험과 독서 경험을 일체화 시킬 수 있는 독서교육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독서지도를 담당할 사서들의 독서력 향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교육시스템에서 추천도서 읽기

벤치마킹 대상 대학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추천도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추천도서들은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시대를 불문하여 골고루 선정되어 있다. 추천도서의 선정경위도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교수나 혹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양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추천도서를 어떻게 읽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벤치마킹 대상 4개의 대학도서관들은 선정된 추천도서를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독서행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졸업을 위한 독서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무적으로 일정한 수의 책을 읽도록 만들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추천도서 중에 10권을 골라서 독서퀴즈대회와 연관시킴으로서 추천도서를 읽게 만들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과목과 연계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읽게 만들고, 조선대학교에서는 토론클럽과 연계시켜 추천도서를 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독서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많고, 현실 사회에 적응하기 바쁘고 또 무엇보다도 교양도서를 전혀 읽지 않아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는 대학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독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추천도서는 마크 트웨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으로만 남게 되고,¹⁶⁾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도서목록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율적인 독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¹⁷⁾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에서 독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추천도서목록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면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은 교양교육의 중심으로서 독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 추천된 도서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격을 형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¹⁸⁾ 일반적으로 교양독서에 해당되는 고전들은 인류 문화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조들이 쌓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목록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고전을 재미보다는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다.¹⁹⁾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고전에 해당되는 교양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스스로 독서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²⁰⁾ 스스로 독서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교육 시스템 차원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졸업을 위한 독서인증제나 혹은 퀴즈쇼, 토론대회, 교과목과 연계해서 읽기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독서인증제와 교과목 연계는 대학교육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토론대회나 퀴즈쇼는 교육시스템 외적인 면에서 도서관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토론대회나 퀴즈쇼와 같은 경우는 대학도서관 차원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 및 자금이 별도로 투자되기에 부족한 도서관 인력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인원은 많지 않아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이 골고루 미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독서인증제는 비록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지만, 읽고

16) J. Raymond, Dennis Badactrewski,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인기, 최병우, 김창원 역(서울 : 박이정, 2001), p.162.
 17) 김양선, 전게서, pp.28-50.
 18) 이만수, “대학생을 위한 필독도서 선정연구,”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1호(2010), pp.184-224.
 19) J. Raymond, Dennis Badactrewski, 전게서, p.165.
 20) 김선남, 강혜영, “대학생의 독서태도와 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6집(2007, 6), pp.217-240.

난 후 다른 사람과의 의견교환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에서 교육과 독서가 함께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성균관대학교 사례처럼 교과목과 독서프로그램을 연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과목의 학습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교과목과 연계하는 독서는 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유익한 추천도서를 소개하거나 설명해주는 명저의 안내자인 동시에 학생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다.²¹⁾ 그래서 추천도서 읽기는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학교육시스템에서 의무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결 조건이지만 도서관에서 관련된 자료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대학교육시스템 차원에서 추천도서들이 활발히 읽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독서토론에 중점을 두는 독서행사

대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행사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 초청특강과 같은 강의식 행사와, 여행을 통하여 직접 경험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독서기행, 독서습관화를 위한 독서캠프,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독서토론 그리고 이벤트 형식의 독서퀴즈쇼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각각의 행사는 서로 다른 고유한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금전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독서가 본질적으로 흥미로운 일인데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거나 혹은 외적 보상을 더하면 오히려 동기가 감소되고 성과가 악화되어 단기적인 보상이 장기적인 학습동기를 몰아낼 수 있다.²²⁾ 즉 상품이나 돈이 어떤 행위에 대한 외적 보상으로 사용될 경우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한 내재적인 관심을 잃게 된다. 그러면 독서습관화를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독서행사가 오히려 잘못된 독서습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독서행사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지속적인 문화운동이 되어야 한다.²³⁾

대학도서관이 독서를 위하여 대학생들의 내재동기를 개발하고 고양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금전 보상 형식의 이벤트보다는 독자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내부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즉 독서를 통한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거움에 기초하는 내재 동기가 발현되도록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독서토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례가 있다.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독서행사를 시작하고 다양한 경험이 많은 조선대학교에서는 독

21) 박정길, 전계서, pp.3-22.

22) 다니엘 핑크, 드라이브, 김주환 역(서울 : 청림, 2011), p.83.

23) 조부근, "독서진흥정책과 출판계 동향," 독서문화연구, 제7호(2007), pp.1-27.

서토론클럽을 2008년에 4개 팀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36개 팀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토론은 일반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좋은 연습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격형성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적당한 행사가 될 수 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대학생들에게 같은 책을 읽고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토론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게 되면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심상과 느낌을 일깨울 수 있다. 연암 박지원도 혼자서 공부하면 사악하고 편벽된 기운이 끼어들기 쉽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으라고 하였다.²⁴⁾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읽게 하는 대신, 읽은 책이라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토론회를 조직하여 활성화 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3. 글쓰기와 병행하는 독서교육

대학생들은 대학시절에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인격과 사고를 갖추어야 할 시기이다. 그들이 인격과 사고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인류가 쌓은 훌륭한 경험들과 지혜를, 독서를 통하여 습득하여 자신의 사유 영역을 넓히고 논리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들의 독서경향은 영상매체나 베스트셀러 등 상업적인 환경에 의해 주로 소설이나 자기개발용 실용서에 치우쳐 있어서 교양인으로서의 주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사회진출 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사소통 능력과 지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독서가 필요하다.²⁵⁾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영향으로 초·중·고교에서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조차도 독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 어떠한 방법이든 독서지도가 필요하다.²⁶⁾

국내의 대학생들은 전공분야의 학습은 담당 교수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교양에 해당되는 독서는 범위가 넓어서 체계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대학도서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교과목과 연계된 독후감 쓰기를 진행하고 있고, 강원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독서동기 유발 차원에서 글쓰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글쓰기를 통하여 독서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의 재료나 혹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읽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색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다. 사고 중심의 독서는 개인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24) 최효찬,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서울 : 바다, 2010), p.100.

25) 김양선, 전계서, pp.28-50.

26) 권광희, 전계서, p.67.

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어 낸다. 그래서 사색 없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²⁷⁾ 사색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책의 간접경험을 글쓰기로 연계함으로써 가능하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과 강원대학교 도서관은 글쓰기가 정보소통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와 인격 향상을 위한 수단 그리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²⁸⁾는 것을 알고, 읽은 책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글을 쓰게 함으로서 대학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독서지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같은 상징 매체 덕분에 과거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내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간접경험만을 익히게 된다면, 상징 매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물을 대신하지 못함으로써,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기 쉽다.²⁹⁾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성장 경험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간접 경험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이이다. 이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연계시키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책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사고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4.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들의 독서력

개인의 직접 경험과 책의 경험을 연계시키려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북카페나 혹은 신문사들의 독서코너와 같이 찾기가 어려운 곳에 있거나, 혹은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더라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책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를 보면 TV나 신문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서 베스트셀러 목록, 친구, 교수 권유 순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도서관이나 사서의 권유로 읽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³⁰⁾ 교양독서의 중심에 있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대학생 독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도서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사서들의 역량부족과 전담 인력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사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독서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부서 혹은 전담 사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이외에 독서에 관심 있는 사서가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은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 습

27) 박동우, 독서혁명(서울 : 은행나무, 2011), p.8.

28) 김원희, "대학생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쓰기 위한 지도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6권, 제2호(2012, 6), pp.375-395.

29) 송도선,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서울 : 문음사, 2009), p.77.

30) 김선남, 강해영, 전개서, pp.217-240.

관화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전담 부서와 전담할 수 있는 사서들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류희경³¹⁾과 이만수³²⁾ 등의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전담부서나 전담 사서제를 두기 이전에 사서들의 역량을 확대하는 일이 더 급하다. 필요한 역량으로는 이용자들에게 독서지도할 수 있는 독서경험을 갖추는 일이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모두 읽고 소화한 사서가 독서지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서가 지도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희정과 박옥화는 레퍼런스 차원에서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³³⁾ 많은 책을 읽어 자신의 사고의 영역을 확대한 사서들은 독서교육이나 대출과정 혹은 레퍼런스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생과 문명에 관한 심오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반대로 그런 질문들에 당당히 맞서서 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왜 인간의 반은 굶주리는가’ 혹은 ‘정의 실현은 가능한가’와 같은 학과별로 있을 수 있는 원초적인 질문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으며, 학생들의 고민에 맞추어 적절한 책을 추천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교수들에게는 책을 활용하는 교육 사례, 책을 활용하는 상담 사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든지 혹은 책을 활용한 독서 사례를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직접 대화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셜네트워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글로써 전달할 수도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나 혹은 소셜네트워크는 이용자와 사서의 만남의 공간인 동시에 책을 소개하고 독서지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항상 이용자들이 있고 그들은 독서에 필요한 지식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서는 물리적인 독서행사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독서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포상금이나 장학금과 같은 외적인 보상형태로 독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서들의 말과 글로써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적인 동기부여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서들의 독서력과 글로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V. 결 론

대학은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공지식 이외에 교양 교육도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독서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비록 대학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행사를 통하여 독서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31) 류희경,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고찰,” 독서연구, 제23호(2010), pp.185-203.

32) 이만수,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p.409-429.

33) 이희정, 박옥화, 전게서, p.331-351.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하여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독서행사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도서관의 독서행사를 벤치마킹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은 외적인 동기부여 방식도 필요하지만,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적인 동기부여 방식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독서가 본질적으로 흥미로운 일인데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거나 혹은 외적 보상을 더하면 단기적인 보상이 장기적인 학습동기를 몰아낼 수 있어 오히려 독서 동기가 감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적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 중심의 독서행사와, 개인의 직접경험과 책의 간접경험을 일체화하는 글쓰기가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된다.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좋은 연습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격형성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대학생들에게 같은 책을 읽고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독서토론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게 되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나의 내부에 잠들어 있는 심상과 느낌을 일깨울 수 있고, 나아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타인이 있으면 학습 의욕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학습형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한편 글쓰기는 정보소통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와 인격의 발현을 위한 수단 그리고 자신의 사고력의 척도로서 사용되기에 대학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글쓰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책의 간접경험을 연계하는 글을 쓰게 함으로서 사색의 영역을 확대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으로서 대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성장 경험을 겪고 있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이이다. 이들에게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의 재료나 혹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이다. 읽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색이 필요하고, 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글쓰기이다. 복잡한 환경으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는 대학생들은 자칫 한 번이라도 글을 써보지도 못하고 졸업할 수 있다. 도서관은 교양학습의 중심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독서토론과 독서 글쓰기와 같은 내적인 동기부여 방식 이외에 도서관은 기존의 교양도서 필독서와 같은 외적인 동기부여 방식과 더불어 대학교육시스템에서 의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고, 실내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서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사서는 이용자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독서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직에 있는 사서들은 비록 많은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의 사서를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에서부터 독서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곽동우. 독서혁명. 서울 : 은행나무, 2011.
- 송도선.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 서울 : 문음사, 2009.
- 최효찬.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서울 : 바다, 2010.
- Erikson, E.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8.
- Pink, Daniel. 드라이브. 김주환 역. 서울 : 청림, 2011.
- Raymond, J., Badactrewski, Dennis.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인기, 최병우, 김창원 역. 서울 : 박이정, 2001.
- Rosovsky, Henry. 대학 갈등과 선택. 이형행 역.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6.

<논문>

- 구연배. “독서요법이 대학생 자아형성 과정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 제1호(2009), pp.13-30.
- 권광희. 대출통계로 본 대학생의 독서 경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학과, 2002.
- 김선남, 강혜영. “대학생의 독서태도와 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6집(2007, 6), pp.217-240.
- 김수경. “대학생을 위한 독서치료의 적용과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13-245.
- 김수경.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치료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241-268.
- 김양선.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 한림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제23집(2009), pp.28-50.
- 김원희. “대학생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쓰기를 위한 지도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6권, 제2호(2012, 6), pp.375-395.
- 김종희, 강정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독서교육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4권, 제1호(2010, 3), pp.271-291.
- 류희경.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고찰.” 독서연구, 제23호(2010), pp.185-203.
- 박정길.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p.3-22.
- 이만수. “대학생을 위한 필독도서 선정연구.”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1호(2010), pp.184-224.

이만수.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p.409-429.

이현실.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4호(2010, 12), pp.179-192.

이희정, 박옥화. “독서요법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미치는 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9), p.331-351.

조부근. “독서진흥정책과 출판계 동향.” 독서문화연구, 제7호(2007), pp.1-27.

한금윤 “대학에서 학제적 독서 교육의 실제와 전망” 독서연구, 제15호(2006), pp.173-205.

<전자자료>

문화일보홈페이지. <<http://www.munhwa.com>> [인용 2012. 9. 16].

서울신문홈페이지. <<http://www.seoul.co.kr>> [인용 2012. 9. 28].

한겨레신문홈페이지. <<http://www.hani.co.kr>> [인용 2012. 9. 16].